



SCIENCE  
BASED  
TARGETS

DRIVING AMBITIOUS CORPORATE CLIMATE ACTION

# SBTi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

핵심 요약

2026년 6월

# Acknowledgments

This translation was kindly reviewed by Hyunjung Kim and Dayeon Lee,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 면책 조항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서는 본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나, 문서를 제공하는데 있어 정확성, 완전성, 충분성, 또는 특정 목적의 적합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SBTi는 불법행위, 계약, 법령 또는 기타 어떠한 법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본 문서 또는 그 내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나 손실에 대한 일체의 의무, 책임, 법적 책임을 최대 범위 내에서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데이터 포함)는 법적, 재무적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조언을 구성하거나 그 근거로 활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SBTi는 본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청구(claims)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SBTi 표준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규제 제도와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SBTi 표준의 준수가 관련 규제 또는 법률 준수를 대체하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적용 가능한 관할 지역의 국가, 지방 및 지역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본 문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문서의 정보 또는 자료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원문 그대로의 형태로만 복제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권리는 SBTi에 귀속된다. 본 문서의 정보 또는 자료는 수시로 개정되는 1988년 저작권·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 Patents Act 1988, 이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개인 연구, 조사, 비평 또는 검토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복제물에는 해당 구절, 인용, 도표, 내용 또는 기타 정보의 출처로서 본 문서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SBTi는 정해진 개정 일정에 따라, 또는 가장 최신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규제·법률·과학 발전 또는 온실가스(GHG) 산정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문서를 개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 및 제안된 변경·수정 사항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조언, 조직적 요구,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와 "SBTi"는 영국 제14960097호 및 영국 비영리 자선단체 제1205768호로 등록된 민간 회사이다.

© SBTi 2026

# EXECUTIVE SUMMARY

면책 조항: 본 executive summary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개요 및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표준의 규범적(normative)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전체 요구사항의 범위는 표준 본문을 참조해야 한다. 본 표준의 모든 번역본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불일치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본으로 간주되는 공식 영문 버전을 참조해야 한다.

## 소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의 미션은 21세기 말까지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넷제로 달성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 기업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11,000개 이상의 기업이 SBTi와 함께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명확한 비즈니스적 이점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제 기후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기후행동을 안내하는 공통의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SBTi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업 맥락과 이에 수반되는 기회와 어려움을 포용하며, 기업의 탈탄소화 수단과 연계되고, 탄소 회계 및 시장 메커니즘 등 개발 중인 프레임워크와 상호 운용될 수 있으며, 기존 접근 방식과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개정된 표준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경험과 학습,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SBTi의 중요한 도약을 나타낸다.

'SBTi CORPORATE NET-ZERO STANDARD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ersion 2.0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장별 차별화된 접근법(Differentiated approaches across markets): 'SBTi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에는 중소기업(SMEs) 및 저소득 국가 기업에 대한 수용 방안을 포함한다.
- 실행 가능한 기업별 여건을 반영한 목표 설정(Set actionable, context-specific targets): 기업은 자본 재고(capital stock), 공급/가치사슬, 섹터, 지역 등 다양한 기업별 특성과 여건의 배출량 감축 기회를 반영하여 Scope 1~3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기업 넷제로 전환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로 빠르게 자리잡은 전환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기업은 두 개 이상의 단기 목표(near-term targets)를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포괄적인 넷제로 목표(overarching net-zero targets)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최선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이행(Act transparently on a best-efforts basis): 감축목표는 주요 가정 및 의존성에 대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된다. 기업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표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상업적 인센티브와의 연계, 정기적인 보증(assurance)을 포함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진행 보고, 그리고 차기 목표 설정 주기에 적용되는 최소 진행 기준(minimum progress criteria)을 통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배출량 감축 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Mobilize all available levers to deliver emissions reductions):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한 이후, 기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은 이행 우선순위 체계(implementation hierarchy)를 도입하여, 기업 운영 활동 및 가치사슬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행동을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활동군(activity pool) 및 산업 수준의 행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정한 안전장치(guardrails)를 전제로, 에너지 속성(energy attributes) 인증서 및 원자재 인증서(commodity certificates)를 포함한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질량 균형(mass balance) 또는 장부 기반 청구(book-and-claim)과 같은 다양한 관리 연속성(chain-of-custody) 모델이 포함된다.

-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평가, 공개 및 강화(Continuously assess, disclose, and strengthen progress):** 기업은 진행 상황, 이행 장벽 및 해소 방안에 대한 연간 보고 및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넷제로 경로(net-zero pathways)와의 지속적 연계를 보장하기 위해 감축목표 이행 주기 종료 전 또는 종료 시점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기업은 SBTi 프레임워크 내에서 넷제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지속적인 배출 책임 유지(Maintain 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에서는 자발적 인정 프로그램(voluntary recognition program)을 통해, 기업의 탄소발자국 감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고품질 무결성(high-integrity)의 탄소 크레딧 및 기타 기후 기여(climate contributio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표준에는 요구사항(requirements)과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은 물론, 두 가지 자발적 인정 영역(Scope 2 시간별 매칭(hourly matching) 및 지속적 배출 책임(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을 포함한다. 표 1은 목표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선택 사항을 요약한다.

표 1. 목표 유형 및 요구사항 개요

	Scope 1	Scope 2	Scope 3
단기 목표(Near-term targets)(5년 목표)	모든 기업 필수	모든 기업 필수	카테고리 A 기업은 필수
장기 목표(Long-term targets) (늦어도 2050년까지 잔여 배출량 수준 달성)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다름	선택 사항	선택 사항
넷제로 목표(Net-zero targets)는 Scope 1, 2, 3에 대한 단기 목표(near-term targets)와 장기 목표(long-term targets), 그리고 넷제로 목표연도의 잔여배출량(residual emissions)을 중화(neutralization)를 결합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선택사항이다. <sup>1</sup>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의 많은 항목들은 전환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를 통해 현재 또는 향후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1 (기업 넷제로 표준 V.1)'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목표 설정은 이미 가능하며, 기업 카테고리(company categorization), 목표 이행 접근 방식(target implementation approaches, 진행 평가(progress assessment), 그리고 지속적 배출 책임(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도 제공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Version 1은 통합한 Scope 1과 Scope 2 목표와 Scope 3 배출량 접근 방식 등을 통해, SBTi 진입을 위한 경로로서 많은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다. 따라서 목표 설정 선언(commitment)하고, Version 1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계획을 해 온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Version 1은 2027년 말까지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Continuing Use Of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1.3.1 And Transition To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

이미 2030년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이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부터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에 따라 다음 목표 주기(2030~2035년)의 목표 설정을 시작해야 한다.

SBTi 표준 프레임워크는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에서 정의한 Scope 1, 2, 3 배출량(카테고리 1~14)에 대한 섹터 간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CORPORATE NET-ZERO STANDARD (기업 넷제로 표준)'을 중심으로 하며, Financial Institutions Net-Zero Standard (금융기관 넷제로 표준)와 고탄소 배출 산업을 위한 섹터 표준 및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sup>2</sup> SBTi는 신규 섹터를 추가하는 동시에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기업 넷제로 표준 V2.0)'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섹터 표준을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 전환 기간 동안 기업들은 기존 섹터 표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sup>1</sup>넷제로 목표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CORPORATE NET-ZERO STANDARD VERSION 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이 SBTi 단기 목표(Near-Term) 기준과 이전 버전의 Corporate Net-Zero Standard (SBTi 기업 넷제로 표준)를 통합·대체함에 따라, 기존 접근방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sup>2</sup>본 문서에서 "Sector Standards (섹터 표준)"는 산업별로 적용되는 SBTi 문서를 의미하며, 섹터 표준(sector standards), 섹터별 기준(sector criteria) 또는 섹터별 지침(sector guidance)을 포함할 수 있다.

‘CORPORATE NET-ZERO STANDARD (기업 넷제로 표준)’는 표준과 별도로 발간된 세 종류의 보완 문서(complementary documents)에 의해 지원된다.

- **Methods and Pathways (방법론 및 감축 경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 **Assurance (보증):** 목표 검증(Target Validation) 및 주기 종료 평가 절차(End-of-cycle Assessment)를 설명한다.
- **Claims (청구):** 기업이 자신들의 SBTi 목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표준의 각 섹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A.1 기업 카테고리 정의

‘CORPORATE NET-ZERO STANDARD (기업 넷제로 표준)’에는 두 가지 기업 카테고리가 있다. 카테고리 A는 모든 국가의 대기업으로 구성되며, 카테고리 B는 매출 및 기타 기준에 따라 정의된 모든 국가의 소규모 기업과 저소득 국가의 중견기업으로 구성된다.

전환 계획(transition plans)의 공개, 목표 기준연도(base year) 데이터 보증(assurance), Scope 3 목표 설정 등 카테고리 A 기업의 특정 요구사항은 카테고리 B 기업에게는 선택사항이나, SBTi는 카테고리 B 기업이 이러한 최소 요구사항을 넘어서도록 강력히 권장한다.

대기업(conglomerate) 내 자회사는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되는 경우, 별도의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 A.2 넷제로 거버넌스

제1장은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조직 전반의 고위 리더십 동의를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BTi 단기 목표(near-term target) 설정은 단순히 감축 목표 수치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넷제로를 향해 노력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를 담은 전환 계획(transition plan)을 설정하며,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행 약속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내 최고 거버넌스 수준이 SBTi 목표를 승인하고, 목표 이행을 감독하며 탄소 전략과 사업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모든 기업은 목표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와 관련 의존성(dependencies)을 포함하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상위 수준 경로를 제시하는 전환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A’ 기업의 경우, 목표가 검증(validation)되는 시점에 해당 전환계획을 공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5개월까지 공개를 유예할 수 있다. SBTi는 전환계획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해당 계획이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전환계획에 대한 투명성은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계획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A.3 목표 기준연도(base year) 평가

본 조항은 표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넷제로 경로와의 지속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CORPORATE NET-ZERO STANDARD V1 (기업 넷제로 표준 V1)'의 과거 기준연도(historical base year)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목표 기준연도(target base year)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다. 목표 기준연도 데이터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은 '카테고리 A' 기업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카테고리 B' 기업에게는 권장한다. 한편, 기업은 원하는 경우, 이전 기준 연도 대비 목표를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A.4 Scope 1 목표 설정

본 조항의 목표는 기업이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Scope 1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단기 목표(near-term targets)를 설정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절대 배출량 감축목표(Absolute emissions reduction):** 목표 기준연도(target base year)부터 넷제로 달성연도(net-zero year)까지 직선형 감축 경로(straight-line emissions trajectory)를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배출 집약도 감축목표(Emissions intensity reduction):** 기업은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섹터별 배출량 감축 기회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섹터 배출 집약도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 **자산 전환(Asset transition):** 이 방식은 자본 재고(capital stock) 교체 주기가 일정한 선형 경로나 섹터 경로를 따르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목표 설정 방식이다. 기업은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저탄소 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이정표(milestones) 및/또는 과학기반 경로(science-based pathway)에 기반한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활용한다. 이정표에는 신규 온실가스(GHG) 배출 자산에 대한 투자 중단 일정과 기존 자산의 운영 종료 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반드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즉, 해당 목표 주기(target cycle) 동안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환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SBTi는 기업의 영업 기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투자 계획까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세 가지 접근 방식 모두 늦어도 2050년까지 넷제로 연도로 설정하며, 기업은 2050년 또는 그 이전을 위한 Scope 1 장기 목표(long-term target)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 배출 집약도 또는 자산 전환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Scope 1 장기 목표 설정은 의무이다.

### A5. Scope 2 목표 설정

Scope 2 배출량 목표 설정 옵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탄소 전력 사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저탄소 전력(low-carbon electricity)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탄소포집·저장(CCS) 설비를 갖춘 전력 생산도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은 배출량 감축 및/또는 저탄소 전력 비중 확대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100% 저탄소 전력 사용 또는 Scope 2 잔여 배출량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는 장기 목표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목표 이행은 저탄소 발전 투자 또는 전력구매계약(PPA), 차액 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CfD),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 등 다양한 계약을 통해 이행될 수 있다. 가동한 지 15년 이하의 발전소와의 계약은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기준 통일 및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기간 또는 금융 조달 기간과의 매칭을 위해 허용된다. 다만, 가동한지 3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규 발전소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PA)은 15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경과조치(grandfathering)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전력 조달과 관련해서는 공급 가능 지역(deliverability regions)을 기준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과 동일한 전력망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인접한 공급 가능 지역과의 송전 상화 연결 권리(transmission interconnection rights)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은 이 조건의 예외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 걸친 전력 부하를 하나로 묶어 단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 허용된다. 한편, 저탄소 전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와 같이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다른 전력망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등 섹터 수준의 대안적 조치(sector-level actions)를 취할 수 있다.

전략 계약과 실제 소비량을 연간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hourly)로 매칭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는 부하 이동(load shifting)과 저탄소 발전 및 저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전력 수요를 저탄소 공급과 더 정밀하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행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저탄소 전력과 시간 단위로 매칭된 전력 소비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이행을 보여주는 기업은 특정 수준의 시간단위 매칭 달성에 대해 SBTi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 A.6 Scope 3 목표 설정

본 조항의 목표는 기업이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Scope 3 배출량에 대해 넷제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가치사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원(material emissions sources)과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단기 목표(near-term targets)에서 일부 배출원을 제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외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제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총 Scope 3 배출량에서 개별적으로 5% 미만을 차지하는 카테고리
- Scope 1 또는 Scope 2 목표 하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을 통해 해당 배출량이 완화되는 카테고리 3(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Fuel- and Energy-Related Activities) 배출량
- 리스 자산(leased assets)의 운영이나 판매된 제품의 가공(processing of sold products)과 같이 기업이 실질적인 운영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활동

따라서, 기업은 단기 목표 설정을 위한 세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다.

-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Overarch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 목표 기준연도(target base year)부터 2050년 또는 그 이전의 넷제로 달성연도까지 목표 경계(target boundary) 내 배출량을 선형으로 감축하여 잔여 배출량(residual emissions)을 10% 이하로 줄이는 방식이다.

- 포괄적 공급업체·고객 연계 목표(**Overarching Supplier/Customer Alignment Target**): 넷제로 목표연도를 향해 과학기반 감축목표(SBTs)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1차 공급업체 및 고객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이에 부합하는 벤치마크를 목표로 설정한다.
- 카테고리별 또는 활동별 목표(**Category- or Activity-Specific Targets**): 이 옵션은 특정 **Scope 3** 카테고리 또는 고탄소 배출 활동에 집중된 기업을 위한 맞춤형 목표 설정 방식이다. 저탄소 원자재 조달과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로의 점진적 전환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섹터 경로(**sector pathways**)가 존재하는 업스트림 배출량(예: 철강, 시멘트, 운송), 기타 업스트림 배출량, 다운스트림 배출량을 구분하여, 각각의 완화 수단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접근 방식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Scope 3** 장기 목표(long-term target)를 설정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A.7 목표 이행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은 기업이 시간에 따라 자사 운영 및 가치사슬의 탈탄소화를 위한 행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목표 이행의 기준을 정의하는 체계(hierarchy)를 도입한다.

- 직접 활동(활동 수준, **Direct Actions – Activity Level**): 기업 운영 및 가치사슬 내에서 배출원 자체를 감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 전환(fuel switching), 공급업체 및 고객의 배출량 감축 참여 유도 및 협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유 시스템 내 활동(활동 풀, **Actions within Shared Systems (Activity Pools)**): 전력·가스 그리드, 원자재 공급권역(supply sheds), 물류 네트워크 등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배출량의 경우, 기업은 해당 시스템 내에서 감축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전력, 바이오메탄, 철강·시멘트 등 소재에 대한 저탄소 속성을 전달하는 시장 도구에 의해 지원될 수 있으며, 원자재 공급권역(supply sheds) 내 토지 관리(landscape interventions) 또는 농업적 개입 등 동일 시스템 내 탈탄소화 활동도 포함된다.
- 섹터 수준 행동(**Sector-Level Actions**): 활동 수준(activity level) 또는 활동 풀(activity-pool)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감축 수단이 제한되는 경우, 기업은 섹터 수준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다만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은 이러한 행동이 동일한 유형의 활동과 관련되고, 관련된 지리적 또는 시스템 맥락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책임지는 배출량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모든 행동과 시장 도구는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에 규정되고 향후 가이드에서 추가로 상세화될 최소 무결성 기준(minimum integrity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성(additionality) 요건과 시장 도구 발행 프로그램의 시스템 수준의 영향(system-level impact)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며, SBTi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자 프레임워크(third-party frameworks)를 인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청구(Claims)는 수행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물리적 배출량 인벤토리(physical inventory) 내에서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성과를 기업의 청구(claims)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반면, 활동 풀 또는 섹터 수준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행동은 시스템 기여 클레임(system contribution claims)으로 인정된다.

## A.8 목표 대비 진행 상황 평가(Assessing Progress Against Targets)

목표는 의존성에 따라 최선을 다해 추진되며, 기업은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기업은 목표 이행 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격차(gaps)와 관련 장애 요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진행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넷제로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주기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 목표 연도에 배출량이 높을 수록 다음 목표 주기에서는 더 가파른 감축이 요구되며 행동의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이후 주기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진행 기준(minimum progress criteria)은 SBTi Assurance Manual에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은 SBTi 프레임워크 내에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지속하며 넷제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 A.9 지속적인 배출 책임(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 OER)

본 장의 목적은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 기여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SBTi 프레임워크의 핵심인 기업 자체 배출량 감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포괄적인 넷제로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가치를 두는 기업에게는 자발적 인정(voluntary recognition)이 제공된다. 이 접근방식은 목표 수준과 이행 방식 모두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목표 수준은 현재 배출량의 1%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행 방식으로는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removals), 장기 저장(long-lived) 여부와 관계없는 제거 활동, 그리고 기타 기후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기후활동에는 사전적 감축 지원(ex-ante mitigation funding), 저탄소 연구개발, 기후적응 및 회복탄력성(adaptation and resilience),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속적인 배출 책임(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이 인정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무결성(high integrity) 프레임워크와 부합한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SBTi는 관련 제3자 프레임워크를 인정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SBTi는 2035년부터 지속적인 배출 책임을 의무화하고, 넷제로 달성 시점에는 잔여배출량(residual emissions)을 중화(neutralization)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상으로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 (기업 넷제로 표준 V2.0)에 대한 개요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문서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SCIENCE  
BASED  
TARGETS

DRIVING AMBITIOUS CORPORATE CLIMATE ACTION

